

문화방송 노보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검증하겠다’ 던 방통위의 대국민 사기극



다. 방문진이 해임한 자를 방통위가 거꾸로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 꼴이다.

무늬만 공모, 방통위의 대국민 사기극

방통위는 당초 이번 MBC와 KBS 이사 선임에서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따라 별도의 공모 절
차를 밟고 후보자를 검증해 독립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그러나 거짓
말이었다.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방통위원은 방
통위 회의 전날인 9일까지도 여러 차례 국회에 들
어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이른바
‘오더’를 받았다. 김석진 방통위원은 이 ‘오더’에
따라 최기화·김도인을 끝까지 밀어붙였고, 다른
방통위원들 역시 결국 자유한국당의 ‘오더’를 거
부하지 못했다. 이들은 방통위원으로서의 최소한
의 자존심도 없이 압력에 눈감거나 굴복했다. 결국
형식만 공모와 검증이었다. 사실상 정치권이 시키
는 대로 한 것이다. 이럴 거면 애초에 국민의 의견
을 듣는 절차는 왜 밟은 것인가?

자유한국당 ‘오더’ 최기화·김도인 방문진 이사 선임

약속은 거짓말이었다. 검증도, 절차도, 법 상식도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압력과 굴복, ‘눈치
보기’와 무소신만 존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
장 이효성, 부위원장 허욱, 위원 고삼석·표철
수·김석진)가 공정방송 파괴와 부당노동행위 주
범 최기화·김도인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
흥회 선임 이사로 선임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한당 추천 김
석진 방통위원에게 “최기화·김도인으로 밀어붙
이라”는 ‘오더’를 내린 상황에서 벌어진 폭거였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방통위원들은
자유한국당의 압력에 굴복했다. 후보 검증 의무와
독립적 이사 선임 권한을 포기했다. 적폐가 재연됐
다. 과거에 그랬듯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정치권
이 개입하고 방통위는 사실상 들러리만 선 꼴이 됐
다.

MBC 파괴범들이 MBC 관리감독?

최기화는 김장겸 체제에서 MBC 기획본부장을
지냈다. 그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MBC 보도국장
을 지내며 편파 왜곡보도를 자행하고, 부당노동행
위를 저질러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
분이다. 공정보도 침해를 지적하는 노동조합의 보
고서를 찢어버리고, 노동조합 민주방송실천위원

회 간사의 보도국 출입을 막은 사건이었다. 이 재
판은 당초 검찰이 불기소로 봐졌지만 법원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시작됐다. 법원이 검찰에 기소를
직접 명령한 만큼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기
화는 또 김재철·안광환·김장겸 등 MBC 불법 경
영진 체제에서 대변인, 기획국장, 보도국장, 기획본
부장 등 주요 직책을 거치면서 편파·왜곡보도를
자행하고 주도했다. 취재를 요청하던 타 언론사기
자들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과문을 일
으켰고, 삼성 장충기 사장을 형님으로 부르며 “콘
서트 티켓을 보내줘서 감사하다”, “귀한 선물 감사
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까지 드러났다.
저급한 언행과 처신으로 MBC 망신을 있는 대로
다 시킨 사람이다.

김도인은 박근혜 정권 시절 라디오국장, 편성국
장을 거쳐 2017년 김장겸 전 사장 아래에서 편성
제작본부장을 지냈다. 김도인은 수시로 MBC 편성
규약을 위반했다. 2017년 대통령 탄핵 다큐멘터리
를 불방시키고 담당 피디를 제작 업무에서 쫓아냈
다. 또 국정원이 작성한 MBC 장악 문건을 충실히
이행해 김미화, 윤도현 등 블랙리스트 방송인 퇴출
에 앞장선 장본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방문진은 최기화를 MBC 기
획본부장에서 해임했고, 김도인은 해임 직전 편성
제작본부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최기화·김도인의 이사 선임은 최대의 코미디

즉각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분명하다. 자유한국당은 아
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방통위의 적법한 권한행사
를 방해하고 개입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방통
위는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권한과 의무를 포기
하고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저질렀다. 이는 직권
남용이고 직무유기다.

이번 폭거로, 시청자 대표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을 정치권과 이에 휘둘리는 방통위에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MBC 구성원들은 이
번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인정할 수 없다. 최기화, 김
도인의 방문진 이사 선임은 국민과 시청자에 대한
우롱이며, 또 다시 공영방송 MBC를 정쟁과 통제
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방통위는 즉각
최기화·김도인의 방문진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
노동조합은 이들의 이사 선임 취소를 위한 모든 수
단을 동원할 것이다.

김성태 “여야 합의로 보장, 2명 반드시 관철하라”

방통위원 “나 휴가 가니까 오늘 넘기지 말자”



이호성



허욱



고삼석



표철수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방문진 이사 후보자 26명과 KBS 이사 후보자 49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의 견’을 접수했다. 철저한 검증은 위해 각계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최종 심사에서 참고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후보자 지원서가 대외 공개용과 비공개용으로 나뉘었고, 후보자 추천인(단체)도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깜깜이’ 선임과 껌대기뿐인 검증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최기화·김도인은 사실 검증조차 필요 없는 인사들이었다. 이미 부적격임이 여러차례 공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MBC 총과업 등 공영방송 정상화 과정에서, 또 각종 매체 보도와 언론 시민단체의 고발과 폭로 등을 통해 이들의 민낯과 이력이 국민 앞에 낱알이 드러났다. 기사 검색만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죄상이 정리된 상태였다.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최기화와 김도인을 밀어붙였다. 이명박·박근혜 적폐 정권의 유산(遺産)답게, 박근혜 정권 하의 편파·왜곡 보도와 블랙리스트 등으로 공영방송 파괴에 앞장서다 퇴출된 자들을, 도로 관리감독자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다. 몰염치와 적반하장의 끝장을 보여준 행태다.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방통위원은 7월 24

일과 8월 9일 등 최소 두 차례 이상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갔다. ‘오더’를 받고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우리 당이 2명을 보장받았다.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 최기화·김도인을 반드시 관철시켜라”라고 지시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만큼 부끄러운 것은 방통위원들의 무책임과 무소신이다. 10일 방통위 전체회의의 표결 과정은 형식에 불과했다. 일부 위원들은 “다음 주 내가 휴가 가니까 오늘 넘기지 말고 무조건 정하자”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최기화·김도인처럼 결정적 하자가 있는 부적격자들을 두고 토론과 검증은 포기하고 정치권 ‘오더’에만 충실했던 것이다.

방문진 이사 선임,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방문진 이사 선출과 이사회 구성 방식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제도를 손보지 않는 한, 유사한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은 MBC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촛불을 들고 거리를 가득 메웠던 국민의 명령이다. 방통위는 이

번에도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명령을 무시했다. 방통위는 국민의 명령만 무시한 게 아니라 법도 무시했다. 현행 방송관계법은 방문진 이사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정치권의 관행을 앞세워 이런 법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MBC 사장 선임권, 이제 국민에게 돌려 줘야

방문진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MBC 사장 임면권이다. 그러나 정치권 ‘오더’로 선임된 이사들이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MBC 사장이 되고자 하는 인사들은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대전제를 뒤로 하고, 방문진 이사들의 배후에 있는 정치권을 향해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방통위의 대대적인 개혁과 동시에, 방문진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방문진은 MBC 사장 선임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방문진 이사들의 배후에 있는 정치권이 MBC 사장을 선출하는 구조를 이제 끊어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장 선임 체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김장겸은 물러나라”를 외치며 MBC 정상화에 불을 댕긴 김민식 조합원, 그가 주말특별기획 <이별이 떠났다>를 통해 무려 7년만에 연출로 복귀했다. 최근 몇년 사이 드라마 제작환경은

많이 바뀌었고,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주요 화두가 되었다. 오랜만에 현업으로 돌아간 김민식 조합원은 이를 위해 어떤 고민을 안고 연출에 임했는지를 지면에 소개한다.

<이별이 떠났다> 제작현장에서 꼭 지키려 했던 것들



김민식 서울지부 조합원

올해 초, 드라마 복귀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드라마 제작편수가 평년보다 수십 편이나 늘어나서 배우나 스태프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시청률 경쟁은 예전보다 훨씬 치열해진 상황에서 ‘7년 만에 복귀하는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거든요. 가장 큰 걱정은 드라마 제작 현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었습니다. 드라마를 연출할 때마다 늘 아팠어요. 야외촬영을 할 때는 새벽 4시까지 찍고 집으로 돌아가 씻고 한 시간 정도 눈 붙이고 옷 갈아입고 다시 오전 7시에 나갑니다. <내조의 여왕>이 끝나고 대상포진에 걸렸고, <여왕의 꽃>을 찍을 땐 두 달 넘게 심한 목감기에 시달렸어요.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고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그러더군요. “이렇게 비싼 주사 한 방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평소에 잠을 꼭 주무세요.” 몇 년 전에는 함께 일하던 편집자가 잠시 눈을 붙이겠다며 5층 숙직실에 갔다가 쓰러져 그 길로 세상을 떠난 일도 있어요. 유가족이 영정을 들고 고인이 마지막까지 밤을 새워 일하던 편집실에 왔습니다. 편집기 옆 달력에는 방송 종료 날짜에 커다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드라마 복귀를 준비하면서, 남몰래 빌었어요. ‘제발 드라마를 만드는 동안,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노동량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이별이 떠났다>라는 대본을 선택했습니다. 스펙터클한 장면보다는 주인공의 섬세한 감정 묘사로 이야기가 진행되기에 촬영에 드는 노동 강도가 덜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주말특별기획은 제작비가 미니시리즈보다 더 작기 때문에 스튜디오 녹화가 필수입니다. 야외 촬영과 세트 녹화를 나눠서 진행하기에 야외 팀이나 세트 팀에게 각각 최소 3일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줄 수도 있고요.

김만태 촬영감독을 만난 건 최고의 행운입니다.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MBC 협회장으로 일하는 김만태 조합원은 드라마 촬영 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더라고요. 처음 만난 날, 의기투합했습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 개선에 최선을 다해보자고. 촬영은 하루 16시간으로 제한하고, 휴게 시간은 최소 8시간 보장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만태 감독의 능률적인 촬영 콘터 작업 덕분에 철야 없이 방송 분량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지금, 저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이번 드라마를 만들면서 자정을 넘겨 일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노영섭 조합원이 진행한 야외 촬영은 대부분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끝났습니다. 자정을 넘긴 경우는 딱 세 번인데 두 번은 00시 30분경에 종료했고, 딱 한 번 새벽 2시 10분에 끝난 날이 있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3일간 촬영을 쉬었습니다.

연속극을 만들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대목은 야외 촬영분과 세트 녹화 분량 간에 영상의 톤을 맞추는 것입니다. 스튜디오 조명을 맡은 나재희 감독님이 섬세하게 빛을 잡아주셨고, 박형준 감독님이 이끄시는 스튜디오 카메라 팀 (김민성·이덕훈·이종현 조합원)은 정교

한 카메라 워킹으로 멋진 그림을 만들어주셨어요. 7년 만에 복귀하는 연출의 부족함을 영상 및 기술 부문 조합원들이 탁월한 기량으로 메워주시는 걸 보며 “역시 MBC는 구멍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조직이다!”라고 느꼈어요. 미옥한 연출을 도와주신 조합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낍니다. ‘밥은 제때 챙기고 잠은 꼭 채우자.’는 당연한 이야기를 무슨 대단한 성과처럼 말하는 것도 민망하군요. 야외팀과 세트팀은 번갈아가며 쉬지만 연출부나 미술센터 직원들은 항상 일을 해야하고 심지어 쉬는 날까지 회사에 나와 다음날 진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에 만연한 과다 노동을 줄이는 건 연출과 촬영감독의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위장취업자에서 늙은 노동자로 어언 30년> (이범연 지음 / 레디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꿈은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의 표준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벌어들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여가를 누리고, 문화적 삶을 향유하고,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참여하는 풍부한 삶의 형식’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가 이 정도의 삶은 살아야지’라는 ‘삶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

주 52시간 노동 준수하며 방송 만들기, 분명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규직 노동자이자 MBC 조합원으로서 제가 꿈꿔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 도와주신 모든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합원 초과노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

노동시간 단축, 이제 미룰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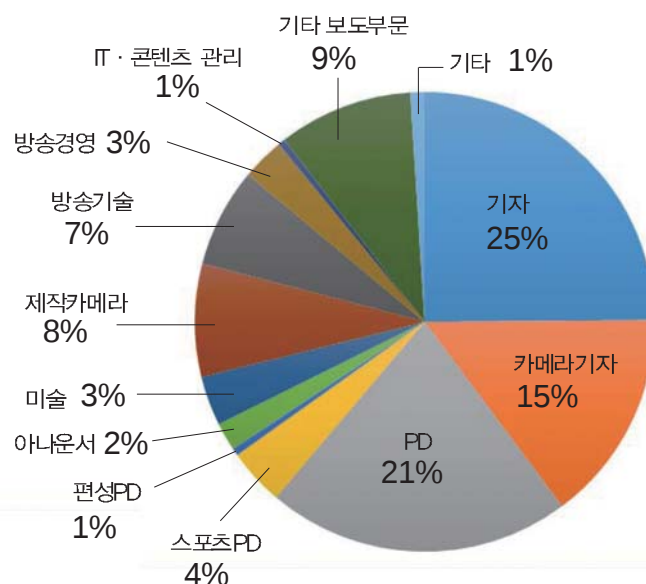
사측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서울지부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초과노동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대상 1,147명 중 439명 응답). 조사 결과는 현재 MBC의 초과노동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장시간 노동한다고 응답한 조합원들의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표1. 직종별 초과노동 실태 (주 52시간 초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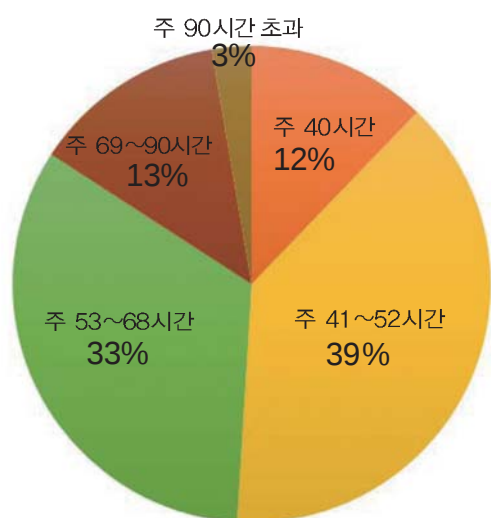


내년 7월 1일 기준으로 불법 상태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노동한다고 응답한 조합원들 중 기자와 카메라기자 등 보도부문이 4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PD 21%, 제작카메라 8%, 방송기술 7%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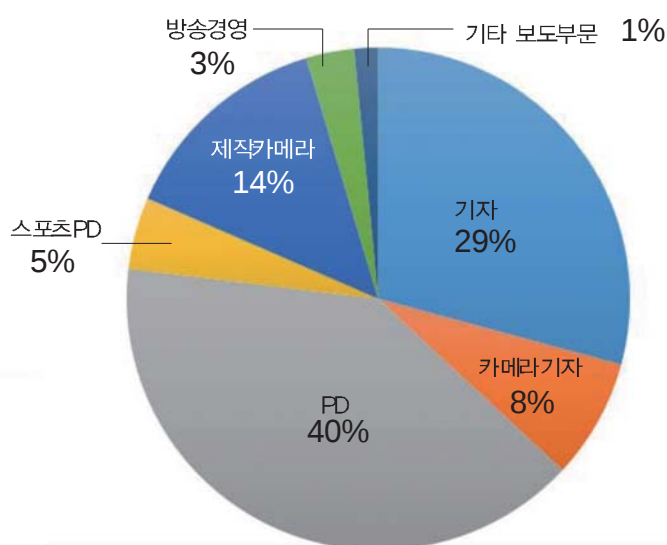


Q. 지난 7월 당신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몇 시간이었습니까?



지난 7월 1일부터 MBC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주간 단위 최대 68시간까지만 노동이 가능한 사업장이 되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까지만 노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주 68시간을 초과해 노동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설문에 응답한 조합원들 중 절반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행 법률에 의해 불법에 해당하는, 68시간을 초과해 노동하는 응답자 비율이 16%로 나타났다.

표2. 직종별 초과노동 실태 (주 68시간 초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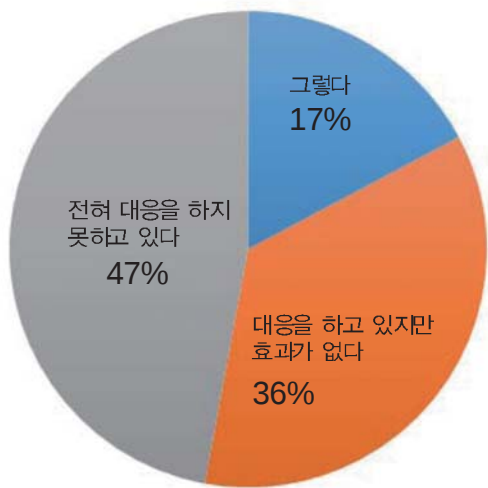
*편성PD, 미술, 방송기술, 시설, IT, 기타 부문은 해당자 없음

현행법 기준으로 불법상태인 주 68시간을 초과해 노동한다고 응답한 조합원들은 PD 직군이 더 많았다. PD 40%, 기자와 카메라기자 등 보도부문이 38%, 제작카메라 14% 순이었다.

PD 직종 가운데는 예능프로그램 조연출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프로그램 편집에 주로 투입되기 때문에 초(超)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단위 90시간을 초과해 노동하는 조합원들 중에 드라마 연출과 조연출, 그리고 제작카메라 직종에 근무하는 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여전히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초장시간 촬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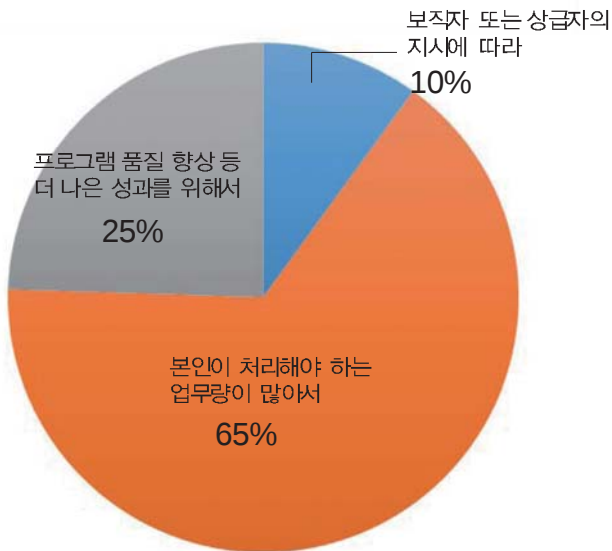
현재 회사가 노동시간 단축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응답자의 83%는 회사가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KBS, SBS 역시 노동시간 단축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는 점에서는 MBC와 같다. 하지만 KBS와 SBS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간외 수당 입력 시스템을 개선해,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는 사원과 이를 결재하는 보직자(부장/팀장)가 주간 단위 노동시간이 68시간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KBS는 이러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구성원들의 초과노동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초과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 재조정과 인력 충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MBC는 보직자들이 시간외 수당을 결재하면서 부서원들의 주간 노동시간을 직접 계산해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회사가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일정마저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은 회사가 노동시간 단축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주 52시간 초과해 노동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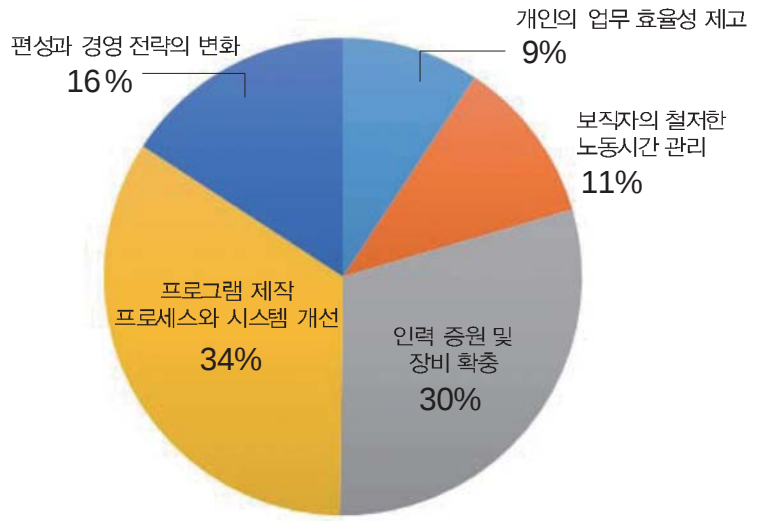


주 52시간을 초과해 노동하는 이유에 대해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거나 보직재(상급자)의 지시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75%를 차지했다. 이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업무량이 과다하며 여러 방법을 통해 업무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우리 회사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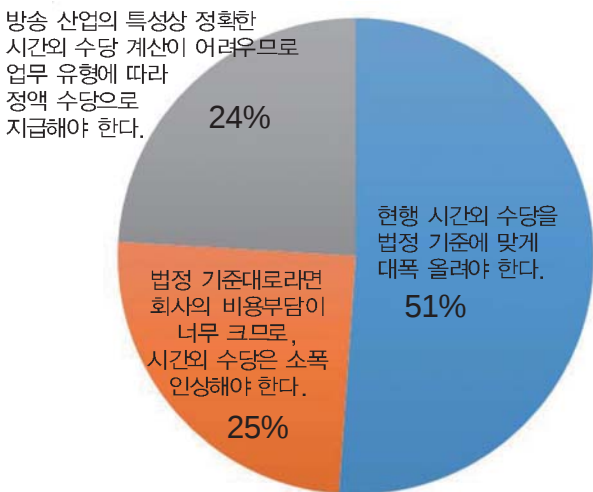
(복수응답 2개 가능)



조합원들은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프로그램 제작 프로세스와 시스템 개선, 인력 증원 및 장비 확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밖에 관리자와 개인들이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응답이 20%, 편성과 경영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16%를 차지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시간외 수당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시간외 수당을 적게 받아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회사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답자의 절반은 시간외 수당에 대해선 현재보다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간외 수당을 법정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업무 유형에 따른 정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합하여 절반에 이른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조합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회사가 획기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초과노동 실태>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합원들께 감사드리며, 노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시간 단축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이다.

민심위 보고서

무엇을 선택해 집중할 것인가?

혁신과 활력 복원, 기본은 뉴스 가치기준 정립

7월 한 달 <뉴스테스크>가 집중한 이슈 중 하나는 국군기무사령부 사태였다. 민간인 사찰, 쏫불집회 채증, 기무사 개혁 방안,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속보 등 MBC의 단독 기사도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기무사의 헌법 유린 행위 중 가장 심각하고 폭발력이 큰 사건, 계엄령 보도의 시작이 한 발 늦었다. 기무사 작성 계엄령 문건은 JTBC가 7월 5일 처음 보도했다. 바로 다음날인 6일 ‘군인권센터’가 문건을 공개하면서 주요 방송사들이 일제히 계엄령 문건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뉴스테스크>는 다루지 않았다. ‘JTBC 보도에 비해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이유였다. <뉴스테스크>가 이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날은 나흘이 더 지난 7월 10일이었다. 인도를 국빈 방문중이던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날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선택과 집중”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박성제 보도국장 취임 이후 <뉴스테스크>는 ‘선택과 집중’, ‘남들과 다른 MBC만의 뉴스’를 선언했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아침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공통 스트레이트를 과감히 버리고 ‘MBC만의 뉴스’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이 같은 변화를 강제한 환경은 거꾸로 지상과 메인뉴스에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바를 분명하게 좁혀주고 있다. 최근 편성국이 실시한 시청자 포커스그룹인터뷰 보고서는 “인터넷 뉴스의 범람 속에 지상과 메인뉴스에 대한 수요가 더 절실했다. 시청자들은 정보의 균형을 잡아주고, 신뢰할 수 있는 메인뉴스를 원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하루를 균형잡힌 시각으로 정리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메인뉴스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이다.

‘남들과 다른 MBC만의 뉴스’는 이미 다른 언론들이 다른 뉴스는 다루지 않는다는 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하루 종일 모바일을 통해 소비된 뉴스의 범람 속에, 사건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만의 시각과 신선한 접근으로 충실히 취재해 전달하려는 시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무사 사례에서 보았듯이 ‘MBC만의 뉴스’라는 원칙은 종종 공통 스트레이트를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7월 18일과 19일 <뉴스테스크>는 어린이집 차량사고와 보육교사 학대 등 보육 문제에 집중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은 타사와 달리 리포트 한 개로 처리하는데 그쳤다. 하반기 경제정책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꺾인 ‘고용절벽’ 상황에서 나온 거시대책이고, 영향을 받을 국민들이 매우 많은 대책이다. 이미 그 전주 <뉴스테스크>는 영세사업장, 숙박, 음식점업의 감소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과연 이 경제 현상은 어떤 상황이고, 이러한 정책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현장 취재와 분석을 통한 종합적 구성이 필요해 보였지만, MBC에서 그런 보도는 없었다.

“오전부터 나온 기사는 다루지 않겠다.”, “큐시트는 오후에 완성하겠다.”는 선언의 의미는 “공통 기사는 추가 취재를 통한 우리만의 시각으로 종합해 다루겠다.”, “오전 편집회의에서는 총 쏘기를 지양하고 취재현장에서 올라온 아이템들을 치열하게 토론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조직 분위기가 침체되고 사기가 떨어진 상황과 결합해, 이 선언이 오히려 ‘공통 스트레이트는 웬만하면 다루지 않는다.’, ‘오전 회의에서는 굳이 아이템 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오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철학의 부재, 경직된 조직문화

‘선택과 집중’ 선언 이후 뉴스테스크는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을까? 7월 한 달 <뉴스테스크>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하루 리포트 갯수는 185개, 다루는 주제의 수는 11개였다(표1). 리포트 숫자가 줄었고, 주제도 줄었다. 고정 코너들을 빼면 리포트 개수는 더 줄어든다. 이는 기자 개개인의 리포트 부담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전히 보도국은 ‘사람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기자들의 사기는 떨어져있다. 무엇

이 문제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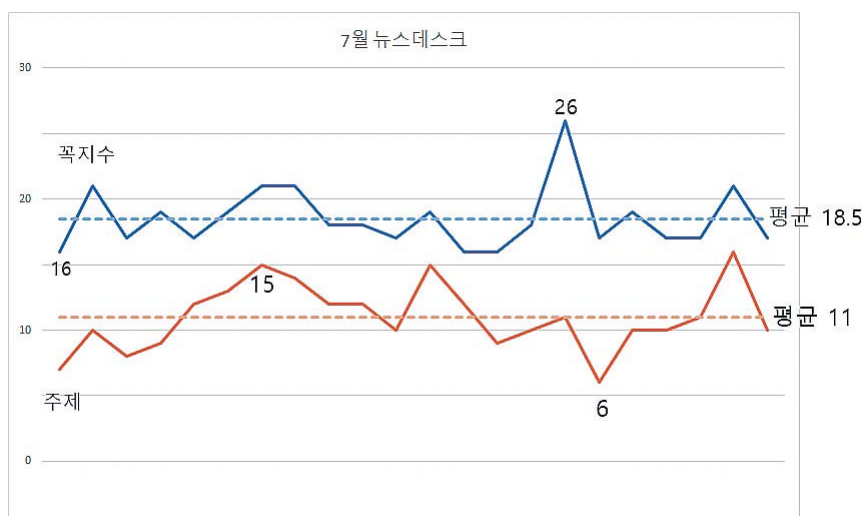
앞서 지적했듯이 가장 큰 문제는 뉴스 가치판단의 기준, 철학의 부재이다. ‘선택과 집중’은 무엇을 선택해 집중하고, 무엇을 생략해도 되는지, 명확한 기준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보도국은 이런 기준, 더 나아가 저널리즘 철학에 대해 공적으로 토론하고 정립해본 적이 없다. 합의된 기준이 없으니 기자마다, 편집회의 멤버들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생산적 토론’이 가능한 조건이 아닌 것이다.

조직 문화도 문제이다. 보도국은 정보 공급자 시각에서 벗어나 출입처 중심이 아닌 이슈 중심의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슈에 따른 에디터-팀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팀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기존 출입처 기반 부서 조직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팀 사이 정보, 인력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소팀제가 가용인력을 줄이고 있다는 호소도 나온다. 출입처 중심의 조직을 지양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슈가 터질 때 이 이슈가 어느 팀 담당인지를 두고 서로 떠넘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난 10년 방송 장악 시대에 우리 안에 자리잡은, ‘일방적 지시에 따른 기사를 피하고 싶어하는 방어적 심리’와 수동적 문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는 취재와 리포트로부터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뉴스가 뚜렷하게 혁신하지 못하는 데 대한 실망감이 자리하고 있다.

기자들의 보람을 위하여

기자들은 무엇에서 보람을 느끼고 의욕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가? 보도국 지휘부는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한다. 끈질긴 취재 끝에 손에 결과물을 쥐었을 때, 내 기사로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확인했을 때, 취재 경쟁에서 앞서나가며 우리 뉴스가 이슈를 주도할 때, 기자들은 보람을 느낀다. 이른바 ‘방송 잘



〈표1〉

하는 기자' 보다는 이런 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기회를 더 부여하고 조직에서 인정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도국에서 이런 보상 기제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장벽으로 작동하곤 하는 팀제를 이슈별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적극적인 실험도 필요하다. 기무사의 헌법 유린 사건을 제대로 다루려면 청와대, 국회, 국방, 법조, 시민사회 담당 기자들의 적극적인 협업과 토론이 필요하다. 페미니즘 이슈는 젠더, 사건사고, 인권, 경찰 담당 기자들의 적극적인 협업과 토론을 요구한다. 현대 사회의 복잡 다단한 이슈는 인위적으로 구분한 보도국의 조직 구분을 늘 뛰어넘는다. 따라서 해당 이슈에 대한 지식과 관심, 적극성을 가진 기자들로 유연하게 팀을 구성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팀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하는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팀간 장벽과 더불어, 보도국에 잔존하고 있는 1-2진을 기본으로 하는 이른바 '기수 문화'는 이러한 운영의 걸림돌이다. 특정 이슈가 누락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는 문제, 만성적인 '인력난' 호소도 이런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성공적인 뉴스를 위해서는 철학, 전략, 조직문화, 운영방식의 정합성이 요구된다. 우리의 눈은 높은 곳을 보고 있지만 몸은 무겁다. 이런 불일치를 실패가 아닌 시행착오의 한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혁신이다.

이번 보고서에 담지 못한 보도부문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민실위는 다음 보고서에서도 보도부문 조직 운영에 대한 분석과 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언이 있으면 언제든지 민실위 간사에게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실위 메모

〈뉴스데스크〉에 과연 로컬 뉴스가 존재하는가?

지난 7월 2일 지역사들의 〈뉴스데스크〉 진행이 줄줄이 사고를 냈다. 서울에서 스포츠 뉴스 블록을 예정보다 이르게 시작하면서 지역사들은 자체 리포트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황급히 스포츠 뉴스를 연결해야 했다. 준비한 리포트가 몇 개씩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뉴스 진행 시간 계산의 실수와 원활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이 겹치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최근 〈뉴스데스크〉에 블록 편성 및 긴 길이의 리포트와 출연이 늘어나면서 큐시트의 유동성이 증가했다. 뉴스 후반에 3~4분 길이의 꼭지가 잡히는 경우도 늘어났다. 지역에서 자체 뉴스로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는 일이 예전보다 어려워졌고, 뉴스 편성 정보에 대한 실시간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다. 현재는 주요 블록의 시간대를 미리 고지하고 스포츠 뉴스가 시작되기 전 리포트에서 한 번 더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MBC의 강점 중 하나는 강력한 전국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뉴스데스크〉에서 이 강점을 충분히 살리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작 본사 〈뉴스데스크〉에는 로컬 블록이 없다. 수도권 2천만 시청자들을 위한 로컬 서비스가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굳이 전국 시청자들이 모두 봐야 할 필요가 없는 수도권 지역만의 뉴스가 전국 뉴스에 배치되는가 하면, 반대로 전국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이 로컬 시간대에 배치돼 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빼앗기 일쑤다. 이러다 보니 지역사들마다 로컬 뉴스를 자르고 들어가는 시간도 저마다 들쭉날쭉이다. 정해진 약속도, 원칙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로컬 뉴스의 이런 기형성은 MBC만의 잘못은 아니다.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예산과 권한 등 한국 사회에서 아직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점, 수도권이 비대해 뉴스 가치에서도 지나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도 원인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 모든 핑계를 돌려서는 안 된다. 모든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지역성을 구현할 책임이 공영방송 MBC 종사자인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뉴스데스크부터 로컬 편집의 원칙을 지키고, 전국 계열사들이 로컬 블록의 시간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그동안의 관행을 벗어나 진지하게 이러한 실험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아니 이는 새로운 실험 이전에 당연히 지켜졌어야 할 원칙이다.

이달 말 전국 보도책임자 회의가 예정돼 있다. 로컬뉴스의 원칙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시도를 기대한다.

‘깜깜이 선거’를 막을 순 없을까?

지역 뉴스가 시청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김인성 강원영동지부 조합원



선거를 한 달여 남겨졌을 때 여지없이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많이 보던, 틀에 박힌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지겹도록 되풀이되는 ‘깜깜이 선거’, 정말 막을 순 없을까? 더구나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고 우린 지역언론이 아니던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고민하기 시작했고 몇 차례 내부 논의 끝에 후보자들의 정보를 인터넷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제작해 유권자들이 모바일로 볼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동갑내기 세 명으로 취재팀이 꾸려졌습니다. 섭외와 현장 인터뷰 진행, 가편집과 본편집, 업로딩 등으로 각자 역할을 나눴습니다.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부터 사전투표 이틀 전(최소 하루는 우리 인터뷰를 보고 정보를 얻은 뒤 실제 투표 행위로 이어져야 하기에...)까지 후보자 수로 나눠보니 하루 평균 18명을 만나는 일정이었습니다. 어! 애매한데? 28명이었으면 아예 엄두를 못냈을 테고, 8명이었으면 어느 언론사에서나 시도했을 텐데 18명은 정말 애매한 숫자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지?” 동갑내기 셋은 그렇게 막연하게 ‘일단 해보자’고 덤벼들었습니다.

첫날부터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넘게 후보지들과 통화해 30분 단위로 후보자 인터뷰를 잡아냈더니 한 후보가 계속 NG를 내며 30분 넘게 쓴 겁니다. 약속시간을 어기는 후보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하는 시간을 이용해 다음 후보자들에게 양해 전화를 해야 했고 아침 8시에 시작한 인터뷰가 점심을 오후 3시에 먹고 저녁은 결국 굶었던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22명까지 만나는 일정, 강원도 땅은 또 왜 그리 넓은지...수시로 밥을 굶고, 커피를 쏘아가며 매달려야 했습니다. 가

장 어려웠던 건 후보자와 캠프의 무관심을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분 단위로 쪼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은 건성으로 인터뷰를 준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한 선거구 모든 후보의 인터뷰가 업로드됐고, 이를 본 후보 캠프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후보자 사이의 조화 수 격차가 그대로 노출됐고, 인터뷰를 잘 준비한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에 대한 평가가 캠프에 전달되면서 후보들은 훨씬 적극적으로 지역 공약과 자신의 포부를 준비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프롬프트가 동원됐고, 지역밀착형 공약을 공부한 흔적이 인터뷰 영상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현장에선 공정함을 잃지 않으려 바짝 신경을 써서 후보자의 발언을 들으며 수시로 재촬영해야 했습니다. 편집실에선 숫자 하나까지 정확하게 하느라 그래픽팀원들과 영상취재기자가 달라붙어 수 차례 검토하고 수정하고 다시 업로딩해야 해 매일의 일정이 고통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강원 영동지역 지방의원 후보자 168명의 인터뷰(18명은 결국 거절)가 MBC강원영동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파되었고, 이번 선거에서 제법 지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지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많은 후보들을 다 어떻게 다뤄?” 이러면서 아예 아무도 다루지 않는 그 이상한 악습을 이어왔기 때문에 ‘깜깜이 선거’가 반복돼왔고 혈연·지연·학연이 판치는 선거문화가 끊이지 않은 건 아닐까요? 적어도 강원영동 지역에선 처음 시도해본 이번 프로젝트가 4년 뒤엔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카메라 앞에 서게 될 후보들이 카메라 뒤 유권자들에게 더 진솔한 공약을 말할 거라 믿습니다. 휴대전화로 우리가 만든 후보자들의 동영상을 보며 후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유권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깜깜이 선거와 구태 선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MBC강원영동 취재팀은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지방선거 때 후보자가 엄청 늘면 어찌지??? 一.一;;

